

제1주제

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·도출연연구원의 역할

모 성 은

(지방혁신인력개발원)

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·도출연연구원의 역할

I. 서론

○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

-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자체 지역경제행정 지원 등을 위해 시도출연 연구원(이하 시도연구원)이 설립된 지 십수년이 지났으나, 시도연구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능은 미흡한 수준임
-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지자체의 지역경제행정 기능이 더욱 강조되는 현시점에서 시도연구원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

○ 연구 범위와 내용 구성

- 시도연구원이 지역경제 리더십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역경제 클러스터의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고, 지역경제 D/B 확보 및 경제혁신 촉진자로서의 기능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함
- 기존의 수탁과제 중심의 연구활동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성 있는 연구과제 내지 지역경제 발전을 이룩하는데 주도적인 위치에서 관련 행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함

II. 지방행정 여건변화와 지역경제

1. 무한경쟁과 지방자치 시대의 도래

- 세계는 지금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의 상태에서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이 공존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
- 블록경제의 형성과 WTO(세계무역기구)의 출범, 국가간 FTA(자유무역협정) 체결로 무한경쟁의 지구촌 경제시대가 도래하고 있음
- 이로 인해 국가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'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'이 되는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가 도래함

2. 지방자치와 지역경제의 관계

- 1991년 지방의회 선거 실시, 1995년 민선지방자치단체 출범이후 현재는 제4기 민선자치시대에 진입하였음
- 국민의정부,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지방이양위원회 내지 지방분권및혁신위원회 등의 활동으로 지방의 분권화는 더욱 확대되고 있음
- 지방이 스스로 지역의 발전을 헤쳐 나가야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함
- 지방의 자립기반과 자율적인 행정체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행정 및 경제정책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
 - 지방자치제 도입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주민의 '삶의 질' 제고이며, 지역민의 '삶의 질' 제고를 위한 첩경은 바로 지역경제의 발전임

Ⅲ. 시도연구원 설립 의의와 운영 실태

1. 시도연구원 설립배경과 진행과정

- 90년대 초반 지방자치제도의 도입, 지방의회의 출범과 함께 지역경제의 문제가 지방자치제 성공의 관건으로 인식됨
- 당시 내무부 지역경제국(지역경제과)의 주도하에 시도별 출연 연구원을 설립하여 지역경제행정 지원 및 쉼크탱크로서의 기능을 기대함
- 내무부 지역경제국이 주관하에 다양한 지역경제관련 행사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(협의회 구성 및 연구원법 제정 등)

2. 시도연구원 설치 및 운영 현황

- 시도연구원의 설립
 - '91년 6월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이 최초 설립된데 이어, 2005년 2월 전북발전연구원까지 전국 14개 시도연구원이 설립됨(표-1 참조)
 - '93년 3월 '시도연구원협의회'를 설립하였고, 매년 지역경제활성화 연찬회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
- 시도연구원의 운영규모
 -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2007년 1월 현재 연구직 63명을 포함 총 90명의 직원으로 가장 크게 운영되고 있으며,
 - 가장 작은 규모로는 제주발전연구원이 연구직 9명을 포함하여 총 14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음

○ 연구활동 실적

- 시도연구원의 연구활동 내용과 실적은 매우 다양하며, 지역별 또는 연구원별로 차이를 보임
- 연구과제는 크게 기본과제(자체연구), 정책과제(시도의뢰), 용역과제(용역발주기관의뢰) 등으로 구분하며, 이중 정책과제와 용역과제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과제임
- 연구원 개인별로 연평균 5~7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, 많은 경우는 연구원 1인이 연간 20건 이상의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

<표 1> 시·도 출연연구원 현황('07. 1. 19현재)

(단위 : 명, 억원)

구 분	설립허가	재정운영현황			현인력 (연구직)
		예산	지자체보조	기금	
계		845	409(48%)	1,554	494명 (연구335)
서울시정개발연구원	'92. 7.14	167	107(64%)	125	90(63)
부산발전연구원	'92. 7.18	66.3	47(71%)	111	43(31)
대구경북개발연구원	'91. 6. 7	58	36(62%)	97	37(25)
인천발전연구원	'95. 8. 3	48	35(73%)	105	41(27)
광주전남발전연구원	'91. 7.25	31	0	236	24(13)
대전발전연구원	'01. 2.28	25	15(75%)	9	16(13)
울산발전연구원	'00.12.23	50	13(25%)	19	30(22)
경기개발연구원	'95. 1.20	167	88(53%)	272	76(53)
강원발전연구원	'94. 6. 9	68	15(22%)	201	33(23)
충북개발연구원	'90. 4.23	28	5(18%)	76.5	16(10)
충남발전연구원	'95. 4.14	62	12(19%)	125	32(23)
전북발전연구원	'05. 2.16	29	22(76%)	13	21(13)
경남발전연구원	'92. 7. 8	117	12(10%)	95.5	31(23)
제주발전연구원	'97. 3.19	36	11.5(32%)	50	14(9)

※자료 : 행자부 지역경제팀 내부자료.

IV.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시도연구원 기능제고 방안

1. 지역경제 클러스터의 플랫폼 기능

1) 지역경제 혁신 중추기능 담당

-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활용, 보다 실효성 있는 지역혁신체계를 구축
 - 현재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간사(총무)기능을 대부분의 시도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음
 - 이를 활용하여 시도 지역혁신체계를 공고히 하고, 지역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역경제혁신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
- 권역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지역산업·경제 클러스터 구축 운영
 - 이 밖에도 시도간 내지 권역별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여 보다 광범위한 지역경제행정의 수비범위를 확보하고 권역별 지역경제 혁신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

2) 지역경제관련 중앙-지역 학술·연구단체와의 교류

- 지방의 명실상부한 지역경제 썩크탱크(Think-tank)의 기능 수행
 - 전국단위의 지역경제관련 학회, 중앙의 경제연구원 및 유관기관은 물론 지역에 소재하는 각급 학술 연구기관과 연계, 교류를 통하여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함
 -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학술연구 내지 공동행사 추진 등을 실시함

- 지역경제관련 다양한 정보수집 및 정보공유 실시
 - 지역경제관련 각급 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관련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된 학술 연구 교류를 실시함

3) 지역대학 및 산업경제 유관기관과의 연계

- 지역 내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과의 유기적인 연계
 - 지역의 대학교수와 대학내연구소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부존하는 고급 인적자산을 최대한 활용함
 - 지역대학과 공동연구, 공동사업을 통해 상호 밀접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함
 - 상호교류의 원활화를 위해 휴식년을 맞이한 대학교수의 기간제 연구위원제도 도입 및 시도연구원의 지역대학 강의활동을 장려함
- 지역의 산업경제 유관기관단체와의 연계
 - 지역상공회의소, 중소기업지원센터, 경제인연합회, 지역상인연합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하고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추진함(지원창구마련 등)
 - 각종 현안문제 발생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구비함

4) 지역경제포럼 운영 및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

- 권역별 지역경제포럼 운영
 - 지역경제 관련 학회, 대학, 연구소,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한·미 FTA 체결 등 무한경쟁시대에 지역경제의 활로모색을 위한 포럼을 운영

- 한국지역경제학회 지회(충청지회, 전북지회, 광주전남지회, 대구경북지회 등)와 협력하여 권역별 지역경제 포럼운영, 지역의 현안사안에 대하여 광범위한 논의를 추진
-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범지역적 경제활력 분위기를 형성
-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
 - 권역별 지역경제포럼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적 분위기를 형성
 - 이를 위해 중앙-시도-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

2. 지역경제 D/B 관리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 확충

1). 지역경제 통계의 작성

- 지역경제를 분석을 위한 각종 지역통계의 정비
 -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경제 현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함
 - 이를 위해서는 지역경제와 관련된 각종 부존자원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지방자치, 지방분권, 사회복지 분야는 물론 무엇보다 지역경제 분야에 관한 기초자치단체별 통계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
 - 현재 매우 빈약한 시군 기본통계를 정비하거나 확충하는 작업이 필요함
- 시군별 지역경제통계의 정비
 - 지방자치, 지방분권 그리고 제4기에 걸친 민선자치시대에도 불

구하고 GRDP, GRP, 지역경제성장률, 1인당 소득 등 지역경제의 총량지표조차 부재한 실정임

- 지역경제의 수준을 파악하거나, 현황을 파악할 총량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관리한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실정임
- 따라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역의 거시경제지표는 시도연구원에서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, 혹 이를 추진할 여력이 없을 경우,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음
- 단, 통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중앙(행자부)차원에서의 지역계정(SRA)에 대한 통계기준 설정이 필요함

2) 지역경제동향 및 각종 경제정보의 관리

- 지역경제동향 분석(정기간행물) 발간 제공
 - 지역의 산업·경제부문의 실태를 분기별 내지 반기별로 분석하고 이를 정간물로 발행
 - 지역에 소재한 기업과 산업부문에 배부하여 이를 적극 활용토록 배려하고 이를 활용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회원제로 등록 활용
- ‘지역경제 브리핑’ 작성 제공 등 각종 지역경제 정보의 관리
 - 지역경제동향분석 이외에도 FTA의 지역경제영향 등 수시로 바뀌는 지역경제 현안문제에 대하여 실태를 분석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‘지역경제 브리핑(주간)’을 작성 배부
 - 민선단체장은 물론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 CEO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

3) 시도별 경제운용방향 제시

- 장단기 지역 거시경제 목표의 설정
 - 지역의 각종 경제지표를 활용하여 장단기 거시경제 목표를 제시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
- 연도별 지역경제운용방향 제시
 - 정부의 경제정책운용방향과 같은 지역경제정책운용방향을 설정 제시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제발전을 유도하는 시스템 구축
 - 이를 위하여 시도 단위에 △△도(시) 경제정책위원회를 구성 운영

4) 연구원내 지역경제 연구기능 확충

- '기본연구과제' 위주로 연구활동 수행
 - 현행 시도연구원의 경우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수탁연구과제 수행에 대부분의 에너지를 뺏기고 있는 실정임
 -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연구과제를 발굴하여 보다 충실한 연구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
- 원활한 지역경제 연구를 위한 예산지원 등 시스템 확보
 - 시도연구원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 또는, 연구자의 평가기준이 정해져 있을 경우 수탁(용역)성 연구과제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
 - 따라서 보다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관련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확보와 연구평가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

- 지역경제 전문 인력 확보
 - 지역경제, 지역금융, 산업, 기업, 무역(수출입), 투자유치, 경영마케팅,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, 통계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관련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이를 전면배치
- 연구원내 산업경제관련 연구부서 보강
 - 지역마케팅, 투자유치, 특화산업, 향토자산, 지역금융 등 별도의 전문연구부서를 구성 운영

3. 지역경제 리더십 확보 및 혁신 촉진자 기능 강화

1) 지역경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

- 경제 유관기관의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자문위원회 구성
 - 연구원장과 부단체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지역경제자문위원회를 시도별로 설치, 상설 운영
 - 시도 경제국장 및 관내 경제유관기관의 부단체장을 위원으로 하고, 연구원의 연구기획실장이 간사가 됨
 - 지역경제관련 연구결과의 자문활동은 물론, 각종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행사추진시 원활한 협조 체제 구축
- 지역경제 자문위원회의 활동 영역
 - 거시경제운용방향 설정, 지방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정책 추진 등에 있어 연구원 해당부서와 상호 협력적 지원관계를 형성함
 - 시도의 지역경제 정책업무를 자문하고 지원함

2) 지역경제 혁신리더 워크숍 및 연수행사 추진

- 지역혁신 리더 양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 추진
 - 지역에 숨겨진 혁신리더를 발굴하고, 이들의 혁신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
 - 지역혁신 리더간의 네트워킹 구축 및 학습 연구회 활동을 지원
- 지역경제 리더그룹을 통한 경제 활력 분위기 형성
 - 경기의 팽창과 위축은 경제주체들의 인식과 분위기에 의해 좌우됨
 - 시중 경기의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그룹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력 분위기 형성 노력

3) 시장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활동 추진

- 시장경쟁체제의 정착을 위한 노력 강화
 - 지방행정 시스템을 시장경쟁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제반 여건을 확보
- 경제행정규제 철폐를 위한 지원·연구 활동 추진
 -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을 억제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단계적으로 철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의식개혁운동에 솔선

4) 시도공무원교육원과 협력, 공무원 경제교육 실시

- 지방공직자를 대상으로 경제기초 교육실시
 - 시도공무원교육원과 협력하여 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

- FTA 등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는 지방공직자(7급이하) 양육 프로그램 개설
- 경제담당공무원과 지역경제 실무공직자들이 담당
- 경제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
 - 경제일반 이외에 보다 전문화된 지역경제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
 - 시도공무원교육원은 물론 여타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교육과정 개설
 - 경제담당 연구원이 직접 출강하는 실감나는 교육과정 운영

5) 각종 지역경제 학술행사의 추진 및 학술자료 관리

- 권역별 경제통합 분위기 조성
 - 대구경북지역, 광주전남지역, 충청권 등 사실상 동일 경제권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구역의 구분으로 인하여 경제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
 - 이들 권역내 각급 경제유관기관 등과의 연계와 공동 학술활동을 통하여 경제통합 분위기를 고양
 - 특히 지역경제학회 지회 등과 협력하여 경제통합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을 모색
- 국내외 학술기관과 공동 학술행사 추진
 - 시도연구원이 학술연구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할 것임
 - 이를 위해 연구업무 이외에도 학술세미나 등 행사를 추진하거나 지역에 산재한 여타 학술 기관을 통하여 다양한 학술활동을 추진

V. 결 론

-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과 지방자치의 시대적 여건에 보다 능동적으로 부응해야 할 것임
-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역경제 행정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, 이의 사전단계로서 지역경제 상황을 파악하고, 연구 검토하는 활동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
- 지역경제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역할은 시도연구원의 본연의 기능에 속하므로 그 기능을 제고하여야 함
 - 시도연구원의 당초 설립취지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달리 출연기관(시도)의 위탁(수탁용역)과제 수행에서 탈피하여 보다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활동을 추진해야 할 것임
 - 즉, 관련예산을 확보하고 조직기능을 보완하여 지역경제 연구 및 활동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리더십을 배양하고 명실상부한 지역경제의 쉥크탱크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임.